

물류행정 통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축의 핵심은 물동량 확보와 물류비 절감임
 - 특히 물류비 절감은 국가차원에서는 경쟁력 제고,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행정체계가 부처별 업무중복·누락, 행정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정신 부족 등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체계의 개선 없이는 물류비 절감은 요원한 것이 현실임
 -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조정도 원활하지 않음
- 개선방안으로 육상·해상·항공을 포괄하는 물류행정 통합체계구축 및 화물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 수준의 ‘(가칭)물류발전협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가칭)물류효율화법’의 제정도 고려하여야 함

1. 국내 물류행정의 문제점 검토

○ 고비용 저효율의 물류비용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

- 국내 2001년도 국가물류비는 GDP 대비 12.4%(67조 5천억원)를 차지하여 미국의 10.1%, 일본의 9.5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물류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SOC 부족, 물류시설 및 운영시스템의 낙후, 그리고 비효율적인 물류행정체계에 기인함

○ 각 부처간 물류관련법과 시설계획의 중복성

- 중앙정부의 물류시책들이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투자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관련시설은 여러 법과 관련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시설들이 관할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일부 중복건설)되어 이로 인해 비효율과 각종 시설간의 연계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부처별 물류관리 기능 및 시설

항목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관세청
주기능	내륙, 공항, 철도운송	해운, 항만	기업물류, 유통	농·축산물 유통	관세, 통관
물류·유통 시설	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 유통단지 항공화물터미널	항만 배후단지 수산물유통센터 수산물도매시장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	농축산물유통센터 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관련법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철도법	항만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화법 수산업법	관세법

* 볼드체는 명칭만 상이할 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유통시설임

○ **항만물류와 내륙물류의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 해양수산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항만물류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의 육상물류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부처별로 각기 운영됨으로써 최근의 항만화물운송노조 및 화물차주의 노동쟁의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2. 선진국의 사례검토

○ 네덜란드의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와 외국화주의 화물유치(물류유치 포함)를 위해 재경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내에 투자유치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및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기구로서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l Distribution Council)를 운영

-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과 스키폴 공항을 주축으로 유럽 전지역으로의 2일 이내 배송을 목표로 **국가전체를 물류단지화**
- 국가·지방정부가 지원하여 설립한 HIDC는 Distripark 등 물류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 EU전체 외국인 투자물류센터의 57%(544개)를 네덜란드에 유치

○ **대만의 경우** 개별 부처별로 물류 관련법·제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止揚하고, 대통령 직속 경제개발위원회(CEPD)가 그 임무를 담당

- 경제개발위원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교통통신부, 경제부, 재정부 등의 차관과 지자체의 부시장 등이 참여하여 법제도 정비계획의 실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전략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
- 대만은 중국과 연계한 생산기지화에 역점을 두면서 **역내 물류센터 역할**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
 - '95년부터 물류·금융·제조업 등 6개 분야의 중심지화를 추구하는 APROC 계획을 시행해 오다가 2000년에 Global Logistics Development Plan으로 변환하여 물류로부터 파급효과를 기대
 - 장개석 공항에 UPS아시아 물류센터 유치, Dupont·Dell·IBM 등 물류센터 유치성공 등

3. 물류행정 통합기구 설립

- 선진외국의 사례 및 통합행정기구설치 효과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 시사점 도출
- 운영관리 부처, 조직관리 부처의 반대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물류행정 통합추진기구 설립
 -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기구 수준의 ‘(가칭)물류발전협의회’를 설립하여 구심점을 찾아야 함
 - 이 협의회의 기능은 법제도 정비의 우선순위 설정 및 개정작업 추진, 종합 마스터플랜의 작성 및 집행, 정부 각 부처의 물류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 동북아 물류중심지에 대한 정책수립 총괄 및 조정 등임

4. (가칭)물류효율화법 제정

- 중앙정부는 유통산업 변화 수용과 유통관련시설의 통합적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합·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각종 법과 여러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물류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해야 함
- 하지만, 전통적으로 물류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물류관련 법령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세부 물류업종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법보다는 모든 물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물류효율화법’을 제정하고, 이 법령과 기존 개별법령에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은 조정토록 함

국토연구원 임영태 책임연구원 (ytlim@krihs.re.kr, 031 - 380 - 0364)